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4)

- 읽을 말씀 계 20:1-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의 세 가지 견해 중 무천년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대부흥과 대추수가 비성경적이라는 것과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중 어느 견해가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② 후천년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천년왕국을 못미더워하고 무천년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예언했습니다(단 7:13-14, 27).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중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일까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땅 위에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년왕국처럼 되고 재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인류 역사가 대환난으로 끝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는 재림이 나오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림 후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전천년설이 옳습니다.

한편, 후천년설은 영성운동 진영의 밥 존스, 빌 해몬, 릭 조이너 등 많은 이들이 예언한 대부흥과 대추수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빗나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무조건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전부라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온통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고향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반대하

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제자들과 우리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비유에 나타나있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 밭에 따라 대부흥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시다발적인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지 부흥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마 24:14). 오히려 세상의 끝 재림 전에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부흥이 아니라 세계선교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살후 2:3). 무엇보다, 재림 직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시록을 보면 인류 역사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니라 대환난으로 끝납니다(10-19장). 이처럼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거나 예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흥과 대추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흥과 대추수의 근거로 제시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대부흥과 대추수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 47장 1-8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는 대부흥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해석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고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요엘 2장 28-32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을 오순절 성령강림과 연관시켰습니다(행 2:16-17). 그러므로 교회시대(성령시대) 전반에 대한 예언이지 종말에 있을 대부흥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셋째로, 스가랴 8장 20-22절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때 회개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더 있으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한 것이 대부분이고(창 12:3, 18:18, 22:18, 26:4, 28:14), 일부는 교회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기술했던 것들입니다(스 8:20-22, 사 2:2, 11:9, 66:23). 이 중 가장 그럴듯한 구절인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를 보통 교회시대로 보는데 그 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4).”**를 볼 때 천년왕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시대 때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흥을 예언한 것으로 믿는 구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는 정확히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초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인데, 4절 후반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초림 때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 6-8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편,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21)** 라는 말씀이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빌 해몬 박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재림 전에 만물의 회복, 즉 성경적인 진리와 사역과 직임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재림을 통해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먼저, “만물의 회복”은 세례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한 말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라”(마 17:11)**와 비슷합니다. 원어도 “만물”과 “모든”이 ‘파스’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파스’를 “만물”로 번역했고, 세례요한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파스가 “모든”이 아닌 “만물”일 경우 이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1절을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만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또, “만물의 회복” 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들의 성취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종말에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설사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뜻한다 해도 대부흥과 대추수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회복 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리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19)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은 재림 때 일어날 일로 요한이 말한 우리의 몸이 속사람에 걸맞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3:1-2). 피조물들이 이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회복할 때 피조물들도 다시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재림을 통해 천지 창조 때와 같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대부흥과 대추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거나 예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허황된 꿈 대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붙들고 세계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흥이나 추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부흥과 대추수는 불가능해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크고 작은 부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밭에 따라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이 가난한 국가들과 도시들에 집중함으로써 대부흥과 대추수를 일으키되, 그렇지 않은 곳도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세계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며, 이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